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3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68.70원 (-1.70원)

KOSPI

6,562.72 (+273.08, -3.99%)

KOSDAQ

803.98(-17.27, -2.10%)

국고채 10년 금리

4.418(+0.04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유틸리티/2차전지 Electro-state, 대전환의 시작 [유재선, 김현수]

Global Asset Strategy

월간 하나채권 [9월] 진짜 긴축은 이제 시작 [박준우]

산업분석

통신 장비 2027년 국내에서도 5G 주파수 경매가 예상됩니다 [김홍식]

Monthly & Weekly

친환경차/2차전지 2026년 7월 EV +8%. 미국/중국 부진. 유럽 나홀로 강세의 심화 [송선재, 김현수]

미국 자동차 HEV 위주의 성장. 하반기 모델 추가 투입으로 관련 모멘텀 강화 [송선재]

글로벌리서치

팔로알토 놀라운 숫자, 그 이상의 스토리 [김재임]

Dell Technologies FY 2Q27: AI 수요와 이익 개선이 맞물리는 선순환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K텔레콤, S-Oil, 대한항공, 이수페타시스,
농심, 코오롱인더, 실리콘투

하나증권

2026년 9월 3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2일

LG에너지솔루션 (373220)

BUY | TP 480,000원 | CP 347,500원

삼성SDI (006400)

BUY | TP 667,000원 | CP 538,000원

한국전력 (015760)

BUY | TP 45,000원 | CP 31,250원

SK이터닉스 (475150)

BUY | TP 66,000원 | CP 50,900원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유틸리티/2차전지

Electro-state, 대전환의 시작

유틸리티: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 공격적인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계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로 송배전망 건설 시장에 민간 자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9년 연말까지 효력을 갖고 건설 후 양도(Build-Transfer) 방식만 허용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지위는 유지된다. 한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와 최대전력 예상치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후속 발표될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필요 자원 규모는 기존 11차 72.8조원 대비 크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개발사 역량 투입에 비례하여 한국전력의 단기 현금흐름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도, 사업마진 차이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2차전지: 태양광 설치 증가에 따른 ESS 낙수 효과 기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국가론'은 친환경 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에 구조적이라고 판단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따라 석유 공급선 다변화,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는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은, 탈탄소가 아닌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전기국가 당위를 제시하고 있다. 태양광 중심의 전기 국가 전환은 집권 세력의 정파를 막론하고 진행되는 구조적 흐름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 따르면, 2040년 태양광 설비 목표는 171GW(자가용 포함)로, 2026년 6월 말 32.7GW 대비 향후 약 138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신규 태양광의 약 37%가 ESS와 연계되고(미국 전체 송전망 접속 태양광 중 ESS 결합비율 47%를 20% 할인), ESS 출력을 연계 태양광 설비의 0.7배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ESS 출력은 약 35GW다($138\text{GW} \times 37\% \times 0.7$). 장주기 ESS를 평균 5시간으로 가정하면, 2040년까지 태양광 확대에 수반되는 ESS 배터리 잠재 수요는 약 175GWh($35\text{GW} \times 5\text{시간}$)로 추산된다. 풍력 발전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향후 14년간 연평균 15.6GWh의 ESS 배터리 수요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Top Picks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터닉스 제시

2차전지는 Top Picks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를 제시한다. AMPC 포함 지배주주순의 고려했을 때, 국내 시장 개화가 가파른 EPS 증가를 가져오지는 못하나, 북미 시장 내 빠른 공급 대응과 이를 통한 AMPC 수취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내 ESS 시장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게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것이 북미 영업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셀 메이커들의 AMPC 수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틸리티는 SK이터닉스를 Top Picks로 제시한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발전단가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 발전사업자의 PPA 시장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ESS 중장계약시장 규모 확대 국면에서 신규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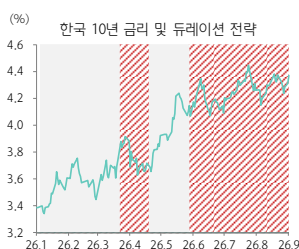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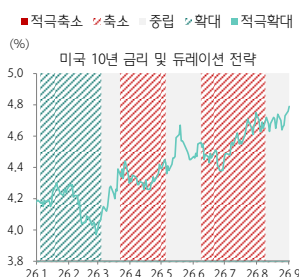
2026년 9월 2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	■
한국	■	■	■

주: 8/10 기준. ●는 직전(6/8) 전망



월간 하나채권

[9월] 진짜 긴축은 이제 시작

- 인상 시점이 아닌 최종 금리에 주목. 성장세와 물가압력, 그리고 미-이 확전은 상방 요인
- 미국: 유동성 팽창과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연준의 인상은 시간 문제
- 한국: 성장이 모든 것을 설명. 인상 속도 조절과 국채 발행 감소에도 금리는 상승

Monthly Viewpoint: 인상 시점보다 최종 기준금리에 주목

2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첫 인상, 한국의 추가 인상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 기간의 기준금리 경로를 반영한 최종 기준금리다. 6월 이후 위시의 스탠스가 매파적이든 완화적이든 금리는 올랐고,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도 초장기물 스프레드를 좁혔을 뿐 금리 하락 효과는 일시에 그쳤다. 단기적인 정책 처방이 금리의 '방향'은 바꾸지 못하고 커브만 움직인 셈이다. 기준금리 프라이싱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8월 들어 2027년 12월 기준금리 기대가 2026년 12월 기대를 상회했다. 올해 인상을 미루면, 내년에 더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진 것이다.

결국 (중장기) 국채금리 판단의 관건은 최종금리를 어디까지 반영했는가다. 한미 성장세와 기저 물가 압력이 견조한 가운데 유가 상승 리스크까지 상존한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의 최종 기준금리 눈높이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10년 금리는 2회 인상을 반영한 4.7%를 적정 수준으로 보지만, 인상이 가시화되면 그 이상을 반영하며 오버슈팅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5.0%까지 염두에 둬야한다. 한국은 8월 금통위 직전에 연속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은 최종 3.50%는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듀레이션 '축소'를 유지한다.

미국: 정책 스탠스가 바뀌어도 금리 방향성은 그대로

5

- 1) 매크로: 유동성 팽창과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
- 2) 통화정책: 연준의 인상은 시기의 문제
- 3) 채권시장: 바이백 효과는 초장기물에 한정. 10년 적정 4.7%, 리스크는 상방

한국: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중착점

10

- 1) 매크로: 반도체의 온기가 점차 확산. 시작은 설비투자
- 2) 통화정책: 성장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노이즈. 최종 3.50% 전망
- 3) 채권시장: 한은의 인상 속도 조절과 내년 국채 순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16

- 1) 국채 투자의견 - 미국 '중립' (8/10 제시), 한국 '축소' (5/28 제시) 유지
- 2) 미국 12, 3월 인상, 한국 11, 2월 인상 전망. 연말 미, 한 10년 금리 각 4.80%, 4.50%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2026년 09월 03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02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8,670원

알에프에이(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7,5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9,30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4,39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5,06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7,08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35,3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1,50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0,35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2,13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38,700원

통신 장비

2027년 국내에서도 5G 주파수 경매가 예상됩니다

한국 2026년 내 5G SA 상용화 계획 발표, 통신망 투자 촉진 구체화

2026년 8월 27일 국내 규제 기관과 통신 3사는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2019년 9조 6000억원에서 2025년 6조 200억원으로 국내 통신 3사 합산 CAPEX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반 무선망(AI RAN),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 및 투자 방향을 논의하였다.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2026년 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5G SA 상용화 현황도 점검하였다. 더불어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의 통신 품질 평가 방식을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내 피지컬 AI 성공 위해 5G 추가 주파수 경매 가능성 고조되는 상황

최근 국내 규제 기관이 5G SA 상용화 및 AI 기지국 확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결국 전세계 국가간 피지컬 AI 도입 경쟁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국내의 경우 AI 3대 강국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큰 성과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초조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미국은 AI 에이전트 부문에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로봇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국내의 경우 네트워크 경쟁 우위를 내세울 수 밖에 없는데 이 역시 최근 동향만 보면 걱정이 앞선다. 5G를 도입한 2019년에는 누가 봐도 한국이 절대적인 통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중국에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초고주파수 사용 여부, 5G 주파수 사용량, 5G SA 적용 여부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어퍼 C밴드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5G 주파수 사용량은 총 700MHz를 넘어가게 되어 현재 300MHz를 5G 용도로 사용하는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 더불어 3.5GHz 사용에 그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3.7GHz는 물론 4GHz 대역까지 점령하게 된다. 통신 부문에서도 이제 미국이 한국에 앞서는 결과를 갖는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도 2027년도에는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예상된다. 2026년 말 관련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5G SA로의 진화와 더불어 AI 기지국 확산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성공을 위해 2027년 5G 투자에 다시 나설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체 투자 유망 평가, RFHIC/KMW/HFR 등 추천

주파수 경매는 무선통신장비 업체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건설사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확보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파수 경매는 국내 중소 통신장비 업체에게 큰 기회 요인이다. 국산화 비중, 중소기업 적합형 모델 등을 따지면 국내 통신 3사에 대다수 업체들이 납품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내수 점유율이 높고 해외와는 달리 에릭슨, 노키아 컨소시엄이 국내 중소 장비 업체들과 제휴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 RFHIC/KMW/HFR/LIG아큐버/오이솔루션/썬리드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6년 7월 EV +8%. 미국/중국 부진. 유럽 나홀로 강세의 심화 | 2026.9.3



투자이전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전기차: 7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8% (YoY).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은 중국 64.3%, 미국 6.8%

글로벌	7월 176.4만대(+8% (YoY), 비중 21.9%). BEV/PHEV 125.7만대/50.8만대(+17%/-9%) 7월 누적 1,111.4만대(+4% (YoY), 비중 20.2%). BEV/PHEV 781.1대/330.3만대(+12%/-10%)
미국	7월 9.3만대(-39% (YoY), 비중 6.8%). BEV/PHEV 7.6만대/1.7만대(-38%/-43%) 7월 판매대수 1위는 (EV)테슬라의 모델Y/(PHEV)Toyota의 RAV4 Prime PHV로 각각 2.9만대/0.4만대 7월 누적 66.8만대(-26% (YoY), 비중 7.0%). BEV/PHEV 57.1만대/9.7만대(-21%/-52%)
중국	7월 94.8만대(-5% (YoY), 비중 64.3%). BEV/PHEV 64.9만대/29.8만대(+6%/-22%) 7월 판매대수 1위는 (EV)지리의 Star Wish/(PHEV)BYD의 Song Pro PHEV로 각각 3.2만대/1.74만대 7월 누적 570.3만대(-12% (YoY), 비중 55.4%). BEV/PHEV 377.8만대/192.5만대(+33%/-23%)
유럽	7월 43.5만대(+35% (YoY), 비중 N/A). BEV/PHEV 30.2만대/13.3만대(+41%/+11%) 7월 판매대수 1위는 (EV)스코다의 ELROQ/(PHEV)BYD의 Yuan UP으로 각각 1.0만대/0.6만대 7월 누적 296.3만대(-12% (YoY), 비중 N/A). BEV/PHEV 204.8만대/91.5만대(+32%/+21%)
한국	7월 2.1만대(+45% (YoY), 비중 14.8%), BEV 2.1만대(+45%) 7월 누적 13.8만대(+86% (YoY), 비중 13.7%), BEV 13.8만대(+86%)

하이브리드차: 7월 글로벌 HEV 증가율은 +12% (YoY). 지역별 HEV 침투율은 일본 51.4%, 미국 17.1%

글로벌	7월 100.2만대(+12% (YoY), 비중 12.5%), 유럽 35.6만대(+9%), 일본 18.1만대(+4%), 미국 23.4만대(+29%), 한국 3.4만대(flat) 7월 누적 698.3만대(+10% (YoY), 비중 12.7%). 유럽 272.4만대(+11%), 일본 117.9만대(-4%), 미국 154.2만대(+22%), 한국 24.2만대(flat)
-----	--

현대차/기아: 7월 HMG의 친환경차/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1% (YoY), 전기차 비중은 11.3%,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0%

친환경차	7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7.8만대(+20 (YoY), 비중 28.4%). 현대차/기아 각각 7.9만대/9.9만대(-4%/+50%) 7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17.4만대(+27% (YoY), 비중 28.0%). 현대차/기아 각각 54.6만대/62.8만대(+10%/+47%) 7월 현대차/기아의 HEV 소매판매는 10.8만대(+20%, 비중 17.2%), 현대차/기아 5.1만대/5.6만대(+2%/+42%) 7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HEV 소매판매는 73.3만대(+27%, 비중 17.5%), 현대차/기아 36.0만대/37.2만대(+12%/+46%)
전기차	7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7.1만대(+21% (YoY), 비중 11.3%), 7월 누적 44.1만대(+27% (YoY), 비중 10.5%) 7월 BEV/PHEV 6.4만대/0.6만대(+33%/-42% (YoY), 비중 10.3%/0.9%), 7월 누적 39.5만대/4.3만대(+38%/-29% (YoY), 비중 9.4%/1.0%) 7월 BEV 현대차/기아 각각 2.3만대/4.1만대(-14%/+91%), 7월 누적 BEV 현대차/기아 각각 15.8만대/23.8만대(+5%/+75%) 7월 PHEV 현대차/기아 각각 0.4만대/0.2만대(-20%/-60%), 7월 누적 PHEV 현대차/기아 각각 2.5만대/1.8만대(-1%/-49%) 7월 전기차 시장 내 현대차/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4.0%(+0.6%p(MoM), +0.4%p (YoY)), 현대차/기아 각각 1.5%/2.5% (+0.1%p/+0.5%p (MoM), -0.4%p/+0.9%p (YoY))

2차전지: 글로벌 7월 배터리 출하 +22%(YoY), CATL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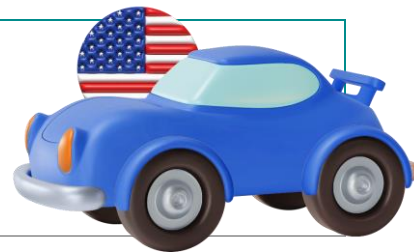
출하량	7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22%(YoY) 증가한 116.0GWh를 기록 - 업체별 출하량은 CATL 46.6GWh(+33%), BYD 18.7GWh(+21%), LGES 7.6GWh(-18%), CALB 6.0GWh(+12%), Panasonic 3.6GWh(-2%), SK on 3.2GWh(-25%), 삼성SDI 1.8GWh(-32%) 7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9.2%로 전월 대비 +1.6%p 상승
원재료 동향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7월 -5%/-6%/+0%/-3%/-0%/-9%/-11%(MoM), 8월 -2%/+0%/-0%/+0%/+7%/+2%/+14%(MoM)

시장점 및 의견: 유럽 3사 합산 시장 점유율 역대 최저 기록

2차전지	2026년 7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24.0GWh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반면,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3.5GWh(YoY +10%, M/S 15%), 1.1GWh(YoY +7%, M/S 5%), 1.7GWh(YoY -5%, M/S 7%) 기록. 3사 모두 시장 성장률 하회. 7월 유럽 내 한국 3사 합산 출하량은 +5%(YoY) 증가한 6.3GWh, 합산 점유율은 26%(YoY -8%p)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 한편,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1-7월) 유럽 내 한국 3사 합산 누적 점유율은 각각 55%, 45%, 34%, 29%. 유럽 내 점유율 하락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던 유럽 내 출하량이 2026년 들어서 증가세 전환한 점은 긍정적. 7월 누적 출하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LGES +10%, 삼성SDI +7%로 증가세 지속. 중국 배터리 수출 환급제도(수출 금액의 9%를 해당 업체에게 환급해주는 제도, 2026년 4월부터 6%로 혜택이 감소했으며 2027년부터는 폐지 확정) 변화로 중국 기업들의 유럽 내 가격 경쟁력 약화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가속화법안(IAA) 구체화에 따른 유럽 공장 가동을 회복 기대 가능하다고 판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ESS 성장성 명확한 가운데, EV 시장의 부진이 추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연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셀 메이커 중심의 배터리 섹터 비중확대 의견 유지
------	--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6년 8월)

HEV 위주의 성장. 하반기 모델 추가 투입으로 관련 모멘텀 강화 | 2026.09.03



투자 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s

Key Insight: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은 긍정적이나, 미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부담도 증가

산업

- 미국 자동차 소매판매는 8월 -5% (YoY), 8월 누적으로도 -0% (YoY) 기록
- 파워 트레인별로는 내연기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가 각각 -5%/-26%/+19% (YoY) 기록
- 전기차 판매는 전년 9월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후 10개월 평균 -27% (YoY)로 부진. 기저 효과가 발생하는 11월 전까지는 부진할 전망
- 하이브리드차는 전체 시장대비 상회한 성장을 보이며, 침투율이 15%대 중반까지 상승. 전년 동기대비 3%p 상승한 것
-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는 8월 -2%/+1% (YoY)로 시장을 상회한 실적 기록하며 점유율 13.0%까지 상승
- 현대차/기아의 합산 내연기관차/HEV/전기차(PHEV+BEV+FCEV)는 각각 -2%/+28%/-40% (YoY)를 기록. HEV 고성장 지속

주가

- 미국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에도 현대차/기아는 HEV 모델 라인업을 기반으로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유지 중
- 미국 내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들의 HEV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HEV 라인업을 강화 중인 현대차/기아의 수혜 지속
- 현대차는 팰리세이드HEV와 함께 하반기 신형 투싼HEV와 GV80HEV 등을 투입. 2030년까지 HEV 모델 10개 이상. 판매비중 50% 목표
- 기아는 상반기 미국 내 HEV 비중 25%까지 확대. 하반기 텔루라이드HEV 증산과 함께 셀토스HEV를 추가 투입으로 연간 107% 성장 목표
-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HEV 판매 호조와 점유율 상승은 글로벌 판매 및 ASP 상승에 기여하면서 실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
- 미국은 글로벌 점유율 및 실적에 중요한 역할이지만, 최근 글로벌 내 미국 판매만 호조를 보이면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가 부진하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로봇/자율주행 부문의 강화에서 찾아야 할 것
- 로봇에서는 생산법인 RA 설립과 지분구조 확정이 가장 중요하고, 자율주행에서는 SDV Pace Car 출시 등이 상승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현대차/기아: 8월 합산 소매판매: -1% (YoY), DSR로는 +3% (YoY)

소매판매

- 현대차의 8월 미국 소매판매 9.5만대(-2% (YoY)), MS 6.9%(+0.3%p). 영업일수를 조정한 DSR 기준 +2% (YoY)
- 현대차의 세단/RV 소매판매 +8%/-5% (YoY). RV 비중 73.9%
- 세단 중 엘란트라/쏘나타 +16%/+44% (YoY). RV 중 싼타페/투싼/팰리세이드/싼타크루즈 +5%/+18%/-18%/-28% (YoY)
-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는 7,635대(-4% (YoY)). 판매 비중은 8.1%(-0.1%p (YoY))
- 8월 누적 67.4만대(+2% (YoY)), MS 6.3%(+0.3%p)
- 기아의 8월 미국 소매판매 8.4만대(+1% (YoY)), MS 6.1%(+0.4%p). DSR 기준 +5% (YoY)
- 기아의 세단/RV가 -17%/+8% (YoY). RV 비중 75.6%
- 세단인 K4/K5 +7%/+10% (YoY). RV 중 텔루라이드/스포티지/셀토스/쏘렌토 +4%/+4%/+65%/+15% (YoY)
- 8월 누적 59.0만대(+3% (YoY)), MS 5.5%(+0.3%p)
- 양사 합산 소매판매 17.8만대(-1% (YoY)). DSR 기준 +3% (YoY). 합산 MS 13.0%(+0.7%p (YoY), +0.8%p (MoM))
- 양사 합산 8월 누적 126.4만대(+3% (YoY)), MS 11.8%(+0.6%p)

미국 시장: 8월 시장 소매판매 -5%, SAAR 1,676만대(+4%),

소매판매

- 8월 미국 시장 자동차 소매판매는 138.1만대(-5% (YoY)). 8월 누적으로는 1,067.2만대(flat (YoY))
- DSR 기준으로도 8월 -2% (YoY). 연환산판매대수(SAAR)는 1,676만대(+4%)
- 세그먼트별로는 SUV(-9%)/중형세단(+18%)/픽업(+2%)/CUV(-8%)/소형세단(-8%)/럭셔리(-40%)

업체별

- GM/포드/스텔란티스 22.3만대/16.4만대/10.8만대(-11%/-11%/+1% (YoY)). MS 16.2%(-1.1%p (YoY))/11.9%(-0.8%p)/7.8%(+0.4%p)
- 테슬라 4.5만대(-19%). MS 3.3%(-0.5%p)
- (일본) 토요타/혼다/닛산 21.6만대/13.4만대/7.5만대(-4%/+1%/-7%). MS 15.6%(+0.1%p)/9.7%(+0.6%p)/5.4%(-0.2%p)
- (독일) 벤츠/아우디/BMW 2.7만대/1.3만대/3.5만대(+9%/-23%/-12%). MS 2.0%(+0.3%p)/1.0%(-0.2%p)/2.6%(-0.1%p)

친환경차

- 8월 미국 친환경차 판매는 32.3만대(+1% (YoY)). 판매 비중 23.4%(+1.2%p (YoY))
- HEV 21.6만대(+19%). 비중 15.7%. PHEV 2.0만대(-3%). 비중 1.5%. BEV 8.6만대(-26%). 비중 6.2%. FCEV 36대에 불과
- 전기차(PHEV+BEV+FCEV) 판매는 10.6만대(-23% (YoY)). 비중 7.7%(-0.4%p (YoY))

2026년 9월 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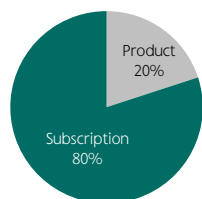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374.37 USD
CP(9.1) 362.09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사이버보안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paloaltonetworks.com
시가총액(십억USD)	295.1
시가총액(조원)	404.3
52주최고/최저(USD)	398.88/139.571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드	7.46
블랙록	6.0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9.1 143.1 90.1
상대	7.2 132.2 71.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9,222	11,480	13,796	15,747
영업이익	2,652	3,356	4,088	4,808
순이익	2,345	2,931	3,413	4,064
EPS(USD)	3.34	3.84	4.08	4.75
EPS(YOY, %)	17.8	15.0	7.0	17.0
PER(배)	108.4	94.3	88.2	75.3
PBR(배)	14.8	14.8	11.1	9.5
배당률(%)	0.0	0.0	0.0	0.0

주: Non-GAAP 실적 기준

자료: 팔로알토,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팔로알토(PANW.US)

놀라운 숫자, 그 이상의 스토리

4QFY26: 모든 주요 지표 기대치 상회, 차세대 보안 ARR 91억 달러, +63% yoy

FY26년 4분기(7월결산) 모든 주요 지표가 가이드언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플랫폼화 채택 확대와 AI 가동을 위한 보안 수요 증대로 계약 규모 확대가 가속화되며 RPO는 34% YoY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차세대보안(NGS)은 순신규 ARR 9.7억 달러(+98% yoy)를 달성, 가이드언스(8억)를 크게 상회, ARR 91억 달러로 63% 증가했다. 플랫폼화 채택은 순신규 220건(+44% yoy)으로 최대치를 경신, 2,500여개에 이르렀다. 4분기 매출액 34.1억 달러(+34% yoy), 조정 EPS 1.02 달러(+7.4%) 기록, 시장 컨센을 각각 2%, 5% 상회했다. M&A에 따른 마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정 OPM, FCF마진을 각각 29.6%, 38.4%로 견고하게 유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 사이버아크와의 비용 시너지 효과가 계획보다 1~2개 분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

네트워크 보안(SASE) 강세, 인수기업(아이덴티티 보안 & 옴저버빌리티) 시너지 뚜렷

1)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이전트 트래픽 폭증이 네트워크 보안 성장의 강력한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SASE 플랫폼의 레거시 보안 대체 규모가 YTD 기준 3분기 2억 달러에서 4분기 4.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된 것이 고무적이다. 2)보안 운영 자동화 플랫폼 XSIAM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XSIAM ARR 7억 달러로 70%가깝게 증가했다. 3)크로노스피어 인수 완료 후 시랩과의 대형 계약을 획득, 옴저버빌리티 ARR이 5억 달러 이상으로 2개 분기 만에 2배 넘게 확대되었다. 4)인수한 사이버아크 아이덴티티 보안 사업을 '아이디라'로 리브랜딩 했다. 사이버아크와의 통합 시너지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 ACV가 27% 증가(인수전 +20%)했으며, 신규 고객사 200개 이상이 팔로알토 기존 고객이다. AI에이전트 도입이 본격화되면 머신 아이덴티티 폭증으로 이어지며, 아이디라 사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 뚜렷, 사이버보안 최선호주

FY27년 1분기와 연간 가이드언스 주요 지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4분기 대형 LLM 고객의 크로노스피어로의 이전에 따른 순신규 NGS ARR 증대가 1분기에도 일부 이어지면서 통상적인 1분기 계절성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FY27년 NGS ARR 성장 가이드언스는 +22~23%로 제시했으며, 연간 순신규 ARR의 60~61%가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AI 가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 12M FWD P/CF는 59배(2년 평균 37배)로 과거 추이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다. 그러나 1)사이버보안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2)중장기 성장성 격차 축소에도 CRWD(약 95배) 대비 여전히 큰 멀티플 격차, 3) FY27년 보수적인 가이드언스의 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주가 업사이드 높다고 판단된다. 실적 발표 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 1)AI에이전트 본격 가동과 오픈소스 AI 확산은 사이버보안 시장의 중장기 구조적 성장 요인, 2)아이덴티티 보안과 옴저버빌리티 영역에서의 Cross-sell 본격화, 3)경영진의 탁월한 전략 실행력, 4)소수 통합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상승세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팔로알토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는 기존 관점을 유지한다.

2026년 9월 2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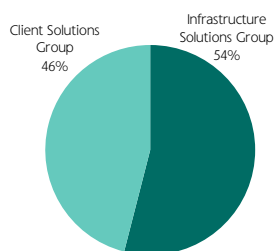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568.55 USD
CP(09.01) 425.00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기술 하드웨어, 스토리		
홈페이지	www.dell.com		
시가총액(십억USD)	274.6		
시가총액(조원)	375.2		
52주최고/최저(USD)	514/110.2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48		
블랙록	7.4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8	187.0	251.4
상대	2.9	176.1	232.4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95,600	113,538	174,047	200,478
영업이익	8,381	9,991	16,302	19,085
순이익	5,865	7,046	12,395	14,737
EPS(USD)	8.14	10.30	18.99	23.27
ROE(%)	-	-	741.3	221.3
PER(배)	12.7	11.1	22.4	18.3
PBR(배)	-	-	165.9	40.4
DPS(USD)	1.78	2.10	2.49	2.82

자료: Factset, 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Dell Technologies (DELL.US)

FY 2Q27: AI 수요와 이익 개선이 맞물리는 선순환

매출, 이익 동반 서프라이즈

델 테크놀로지스(이하 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델 제품의 양호한 수요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메모리와 GPU 등 서버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훼손을 걱정했었다. 우려와 달리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됐으며, 호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실적 가이드런스도 상향했다. 핵심 사업부인 인프라 사업부의 이익 개선이 전사 수익성 향상을 주도했다.

강력한 AI 인프라 수요가 주변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맞물리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견조한 AI 서버 수요는 전통 서버와 스토리지 수요로 확산되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GPU뿐 아니라 CPU 컴퓨팅도 요구하기 때문에 전통 서버의 추가 수요를 만들고 있다. Dell-IP 스토리지 비중 상승과 매출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AI 서버의 이익 부담을 상쇄하며 인프라 사업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2Q27 실적

델의 FY 2Q27 실적은 매출액 470억 달러(YoY +58%), 매출총이익 99억 달러(YoY +78%, 매출총이익률 21.1%), 영업이익 59억 달러(YoY +160%, 영업이익률 12.6%), EPS 7.04달러(YoY +203%)다. 각각 컨센서스를 5%, 28%, 42%, 43% 상회했다. AI 서버뿐만 아니라 전통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전 부문이 매출 성장에 고르게 견인했다.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22% 늘었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 동기 대비 2.5%p 낮아지며 비용 효율화가 이뤄졌다.

호실적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ISG(Infrastructure Solutions Group) 사업부의 이익 개선 속도다. ISG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48억 달러(YoY +225%)로 매출 증가율(YoY +89%)을 크게 웃돌았고, 영업이익률도 15%로 전년 동기 대비 6.2%p 개선됐다. 판매량 증가와 함께 고수익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된 덕분이다. 강한 수요 환경에서도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델은 조립형 비즈니스 특성상 부품 가격 상승이 마진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기업이다. FY 2Q27에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매출과 마진 확장이 동시에 나타났다. 영업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8/31	1,653,000	1,613,000	-2.42%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8/31	1,486,000	1,501,000	1.01%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교환을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선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8/31	571,000	538,000	-5.78%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K텔레콤 (017670.KS)	8/31	98,600	91,400	-7.30%	- 국책 AI 사업자 선정·SK하이퍼 설립·AI RAN 구축 확대를 통해 AI 사업의 성과 예상 - 향후 AI 데이터센터 SPC 이익의 배당 유입에 따른 장기 DPS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
S-Oil (010950.KS)	8/31	149,200	150,900	1.14%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8/31	28,700	28,900	0.70%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이수페타시스 (007660.KS)	8/31	112,800	112,000	-0.71%	- AI 가속기·스위치형 다중적층 MLB 수요 확대와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으로 호실적 기록 - HDI 대응력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가 향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농심 (004370.KS)	8/31	450,500	437,500	-2.89%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코오롱인더 (120110.KS)	8/31	56,500	56,300	-0.35%	- 석유수지 판가 상승과 아라미드 가동을 개선 등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 - 하반기 mPPO 김천 2공장 증설 효과와 CPI 필름 신규 모델향 Full 생산 기대
실리콘투 (257720.KQ)	8/31	53,300	50,900	-4.50%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08%	+1.23%p	+73.41%	+15.9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총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Oil (010950.KS)	8/31	149,200	150,900	1.14%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5,500	5.35%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09,000	-8.33%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25,000	-6.56%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에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38,000	17.21%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510	-8.77%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50,500	-4.5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00,000	22.59%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종산 (103140.KS)	8/3	71,200	77,200	8.4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9,100	-8.30%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75,000	31.81%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79%	+2.44%p	+39.43%	-18.0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710	-9.2%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7,515	26.9%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075	-7.4%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090	-22.0%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8,345	-10.6%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3,865	-8.1%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795	-11.8%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50	-7.3%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4.50	12.3%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4.67	-3.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5.30	-3.5%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6.20	3.3%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45.22	67.2%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3.92	-4.4%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5.47	-3.9%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3.40	4.6%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3.6%, 이전치 6.0%) - 일본 7월 소매판매 (2.4%, 이전치 -3.9%) - 중국 8월 제조업 PMI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49.0,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68.7%,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22.5%,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54.9,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52.3,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52.7, 이전치 52.8) - 유로존 8월 CPI (3.3%,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6.4%,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54.6,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3.1%,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47k, 이전치 44k)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1.1%, 이전치 1.1%)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51.7, 이전치 51.7) - 유로존 7월 PPI (E 5.4%, 이전치 4.6%)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54.1,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55k,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4.1%, 이전치 4.1%)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E --,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E --, 이전치 1.1%) - 미국 8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E --,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E --,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